

---

# 새로이 고안된 대동맥 인조혈관스텐트를 이용한 대동맥박리와 대동맥류 치료에 대한 고찰

연세의과대학교 연세의료원 진단방사선과

정지상, 한일권, 권문규, 유제훈, 이제연, 주하중, 김운섭

---

**목 적 :** 대동맥박리와 대동맥류는 수술적 방법 또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한다. 그 중 비수술적 방법으로 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로 인한 치료의 종전 방법은 시술과정에서 환자의 전신마취나 혈압강하를 시켜야 했다. 그러나 새로이 개발된 경피적삽입술이 가능한 대동맥인조혈관스텐트는 이러한 종전의 과정없이 대퇴동맥 천자만으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 새로이 개발된 대동맥인조혈관스텐트에 알아보려고 한다.

**대상 및 방법 :** 2001년 1월부터 2002년 7월까지의 대동맥박리와 대동맥류으로 내원 환자중 새로이 개발 된 대동맥인조혈관스텐트 삽입술로 치료를 받은 2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15명의 환자 중 대동맥박리 8예이며, 그 중 6예는 Stanford Type B이고, 2예는 Stanford Type A이다. 대동맥류 14예이다. 그 중 1예 대동맥류로 sugical bypass graft를 하였으나 Endoleak 소견이 있는 환자였다. 대상환자 모두는 시술 전 전산화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 혹은 혈관촬영을 시행하였으며, 12F Introducer에 삽입 된 다양한 크기의 인조혈관스텐트를 대퇴동맥 천자로 삽입하여 시술하였다. 추적검사는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새로이 개발 된 인조혈관스텐트를 이용한 경피적 삽입술 시행 환자 22명 중 21예는 시술이 성공(96% 성공률) 1예는 실패하였다. 시술 실패의 1예는 시술 중 먼저 삽입한 인조혈관의 꼬임 현상으로 대동맥박리의 Entry tear가 막히지 않았음을 수술로써 확인 할 수 있었다. 대동맥박리 환자 1예는 시술 중 가강 내 혈류가 관찰되는 Type I Endoleak가 관찰되었으나 추적검사 때는 소멸되었다. 대동맥류 환자 중 1예는 Y-type 인조혈관스텐트를 삽입 후 오른쪽 총장골동맥의 폐쇄이 나타나 수술에 의한 Bypass graft 시행하였다. 그 외 12F Introducer 삽입부위에 혈종 발생이 없었다. 가강 내 혈전으로 찬 후 완전 소실이 단축되었으며 정상 대동맥을 보였다. 또한 전신마취 없고 혈압강하를 하지 않았지만 인조혈관의 이동은 없었다.

**결 론 :** 좀 더 많은 임상 경험과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새로이 개발 된 경피적 삽입술로 가능한 “대동맥인조혈관스텐트”는 시술시간 단축과 간단함 그리고 절개 필요가 없고 전신마취와 혈압강하에 따르는 위험성 배제 등으로 안전하게 대동맥박리와 대동맥류를 치료 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 본다.